

만성적자 광주 지하철 손실 국비 보전될까

노인·장애인 등 무임수송 매년 증가 지방재정 압박

市, 올 처음 국비 85억 요청 ... 지방 대도시 공동대처

광주시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올해 처음으로 국비 85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무임수송 손실분 문제는 광주시는 물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등도 같은 상황이며, 향후 6개 도시가 공동 대처기로 해 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마련한 2018년도 국비확보 계획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지

원’ 명목으로 85억원을 반영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한 해 609만20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무임수송 건수에 지하철요금 1400원을 곱해 추산한 금액이다.

시는 정부 복지정책에 발맞춰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한 199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임수송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무임수송 건수가 늘자 이에 따른 손실액도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2011년 565만 5037건에서 2012년 585만 5182건, 2014년 589만 3245건, 2016년 593만 328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손실액도 2011년 62억원에서 지난해 7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도시철도 운영 적자분 20.6%가 무임수송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무임수송 80%가량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매년 늘고 있어 무임수송 손실액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도시철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하는 만큼 국비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도

교통부와 공공서비스 보장계약을 체결해 손실분 절반 이상을 보전받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광역단체장은 조만간 국회 등을 찾아 국비지원을 공동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임수송과 관련해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면서 “손실분 지원,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해 대구, 서울 등 다른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문제인 치매설’ 비방

네티즌 검찰 고발

광주시 선관위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른바 치매설로 더 불어민주당 문제인 전 대표를 비방한 네티즌이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블로그 개설·운영자인 20대 후반의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치매·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체크’라는 제목으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본인의 블로그에 작성·게시해 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올린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사이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와 같은 사이버상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19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당직자나 당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파악됐다”며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포, 비방·흑색선전 등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인 전 대표 경선 캠프(더캠프)도 이른바 ‘문제인 치매설’을 퍼트린 유포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충형기자 galee@



‘혈관팔팔 구구팔팔’ ...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사전검사를 받고 있다.

27일 광주 북구 두암보건지소(소장 김은숙) 교육실에서 열린 ‘혈관팔팔 구구팔팔 운동교실’에 참가한 지역 어르신들이 혈당과 혈압 체크 등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739만달러 수출 계약

미·일 등 8개국 수출상담회

전남도가 미국, 일본, 중국 등 8개 나라 17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전남 농수산물식품 기업들이 총 739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열린 농수산물식품 수출상담회에는 전남지역 68개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가 참가했다.

상담회 결과 바이어 10명이 23개 수출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고흥 한성푸드가 유자차 200만 달러, 무

안 글로벌오가니푸드가 스낵류 120만 달러, 담양 영농조합법인 광수가 참다래, 메론 등 100만 달러, 담양 산들해(주)가 구운 불유과 80만 달러, 나주 완도물산이 조미

김 35만 달러, 순천 새순천양조영농조합이 막걸리 20만 달러, 함평 이와이엔이 스넥김 15만 달러 등을 계약했다.

전남도는 이번 수출상담장에서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수출 전망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바이어들을 수출 현장으로 초청해 추가 상담을 하도록 했다.

선견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농수산물식품 수출상담회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다양한 농수산물 수출상품을 소개함으로써 신규 수출 거래선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우수한 해외 바이어 발굴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농수산물식품 수출상담회를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전남지사, 도 해외통상사무소 등과 연계 추진했다.

특히 전남도FTA활용지원센터에서 수출기업을 위한 현장기동단을 운영하며 수출 통관 절차, 수출 품목 코드 안내, 수출 애로사항 컨설팅을 해 참가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

“4차 산업혁명시대 광주·전남

스마트에너지·자동차 육성을”

광주전남연구원 미래전략TF팀

“헬스케어·스마트팜 조성해야”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 광주·전남 지역은 스마트에너지산업과 농업, 건강·헬스케어, 자동차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기사 14면〉

특히 미래 인류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로 식량안보,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에 대응해야 하는 농업에 대해 스마트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미래전략TF팀은 27일 광전리더스 인포 ‘2017 세계경제포럼 의제와 시사점’에서 미래여건 변화에 따른 주요분야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미래전략TF팀에 따르면 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핵심의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각 분야의 14개 이니셔티브가 집중 논의됐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은 향후 성장가능성과 지역내 비교우위자원, 특화분야 등을 고려해 에너지, 농업, 건강 및 헬스케어, 자동차 분야를 선정, 향후 대응방향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미래전략TF팀의 의견이다.

농업에 대해서는 전남 남해안 지역의 대규모 간척지를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드론, 농업 빅데이터 등의 관

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세부 과제로 했다.

또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아열대성 농업지역을 조성해 미래 한반도에 적응가능한 종자를 개발·개발·저장하는 것, 육상식량자원을 대체를 위한 수산자원 확대방안으로 수산식품전문단지 조성, 양식기술의 스마트화 및 친환경 양식장 조성 등도 포함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ICT, 에너지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에너지 산업 육성 및 관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캠퍼스 조성을 제안했다.

건강 및 헬스케어분야는 고령화 리빙랩, 스마트형 의료기기 연구, 개발 등이 특화된 액티비베이징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체계적 진단과 예방이 가능한 오픈형 스마트케어 플랫폼 구축 등을 강조했다.

교통체계 및 자동차분야는 수소차, 고효율배터리, 스마트 도로시스템 등을 실증할 수 있는 국가 R&D 집적단지 조성하고 광융합 전장부품 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전장부품 특화단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

미래전략TF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및 중앙정부 건의를 통한 대응 가능한 이니셔티브 수립이 필요하다”며 “지역 간 경쟁보다는 상생의 정책 기조 유지와 지역 내 혁신주체 사이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제주항공, 광주~제주 하늘길 오늘 첫 취항

1일 왕복 2회 운항

광주와 제주 간 저비용 항공사가 28일 새로 취항한다. 저가 항공사 취항은 지난 2014년 10월, 티웨이 항공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시는 28일 오전 10시 광주공항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 최규남 제주항공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항공 취항식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1일 왕복 2회 운항한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광주와 제주에서 출발한다. 제주항공의 취항으로 광주~제주 노선은 대한항공 5회, 아

시아나항공 4회, 티웨이항공 3회를 포함해 모두 14회로 늘어난다.

수송 인원은 월 12만명에서 1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김포간(아시아나항공) 노선 3편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2001년 중단된 광주~김해 노선의 재운항도 추진 중이나 섣달 호응하는 항공사가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제주항공 신규취항을 계기로 광주공항에서 김해 등 다른 지역으로 가는 노선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